



◆ 2020 서울·중국의날 방구석 한·중체험 이벤트 1탄 ◆

◆ 한국어 글쓰기 연습장 ◆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십 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阿里郎》韩国民谣

阿里郎, 阿里郎, 阿里郎哟。郎君翻山过岭, 抛弃我而不顾的郎君啊。走不到十里便生脚病。



◆ 2020 서울·중국의날 방구석 한·중체험 이벤트 1탄 ◆

◆ 한국어 글쓰기 연습장 ◆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序诗》尹东柱

仰望天空直至离世,只求不留一丝羞愧,在轻抚树叶的微风也都让我感到心痛伤悲。

我以心声歌颂星星的胸襟去珍爱一切行将死亡的生命。赋予我的路,我要走下去。

今夜星星依然被风掠过。



◆ 2020 서울·중국의날 방구석 한·중체험 이벤트 1탄 ◆

◆ 중국어 글쓰기 연습장 ◆

茉莉花

好一朵美丽的茉莉花

好一朵美丽的茉莉花

好一朵美丽的茉莉花

好一朵美丽的茉莉花

芬芳美丽满枝桠

又香又白人人夸

芬芳美丽满枝桠

又香又白人人夸

让我来将你摘下

送给别人家

让我来将你摘下

送给别人家

茉莉花呀

茉莉花

茉莉花呀

茉莉花

<모리화> 중국민요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 한 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 그윽한 향기가 가지마다 넘치네 /

향기롭고 새하얀 너를 모두가 칭찬하네 // 널 한 송이 꺾어다가 /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구나 // 모리화 / 모리화



◆ 2020 서울·중국의날 방구석 한·중체험 이벤트 1탄 ◆

◆ 중국어 글쓰기 연습장 ◆

水调歌头·明月几时有 苏轼

明月几时有 把酒问青天 不知天上宫阙 今夕是何年

明月几时有 把酒问青天 不知天上宫阙 今夕是何年

我欲乘风归去 又恐琼楼玉宇 高处不胜寒 起舞弄清影 何似在人间

我欲乘风归去 又恐琼楼玉宇 高处不胜寒 起舞弄清影 何似在人间

转朱阁 低绮户 照无眠 不应有恨 何事长向别时圆

转朱阁 低绮户 照无眠 不应有恨 何事长向别时圆

人有悲欢离合 月有阴晴圆缺 此事古难全 但愿人长久 千里共婵娟

人有悲欢离合 月有阴晴圆缺 此事古难全 但愿人长久 千里共婵娟

<수조가두> 소동파

밝은 저 달 언제부터 있었을까 / 술잔 들고 푸른 하늘에 물어본다 // 하늘 궁궐도 이를 모르네 / 오늘 밤이 어느 해인지 // 바람 타고 하늘 궁궐로 돌아가고 싶지만 / 호화로운 옥 궁궐이 두렵기도 하다 / 높은 곳이라 추위를 이기지 못하겠기에 // 춤추고 맑은 그림자와 어울린다 하여 / 어찌 인간세상에서와 같을까 // 달은 붉은 누각 돌고 돌아 / 비단 창문을 기웃거리 / 잠 못 이루는 사람 비추네 // 저 달은 나와는 원한이 없으련만 / 어찌 이별일 때만 둥근 것인지 // 인간에게는 이별의 슬픔과 만남의 기쁨이 있고 / 달은 맑고 흐리고 둥글고 이지러질 때 있듯 / 자고로 인생도 좋은 일만 있기 어려운 법 // 다만 바라는 건 우리 모두 오래도록 살아서 / 천리 밖에 있어도 아름다운 저 달 함께 볼 수 있기를

Noto Sans